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2019 연차보고서

2019

ANNUAL REPORT

COVER STORY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의 선원들과 과학자들이 북극 해 스발바르의 빙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거의 1년 동안 북극에서 남극까지 항해를 진행해 파괴되어가는 해양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기록했습니다.

표지 사진 © Greenpeace

CONTENTS

04 인사말

06 캠페인 주요 성과

12 프로젝트

26 그린피스 사람들

- 후원자 이야기

- 자원활동가와의 만남

32 재정보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supporter.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홍콩

10/F, Stelux House, 698 Prince Edward Road Eas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 +852 2854 8300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0)10 6554 6931

타이페이

No.109,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45, Taiwan

타이중

No.66, Section 1, Meichuan West Road, West District, Taichung City 40357, Taiwan

가오슝

No. 22, Chengde St, Sanmi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7 80756

☎ donor.services.tw@greenpeace.org

☎ +886 (0)2 2361 2351

2019 연차 보고서 통권 6호

발행일 2020년 7월 17일 |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길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디자인수다

GREENPEACE

☎ 02-3144-1997

☎ su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온라인으로 그린피스와 소통하세요!

온라인상에서 환경 캠페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캠페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린피스의 최신 캠페인 소식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셜 미디어

f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www.youtube.com/greenpeacekorea

팟캐스트 '부자아빠, 살아남는 아빠'

그린피스 홈페이지

2019년 8월, 그린피스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캠페인 진행 상황과 성과를 더욱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후원자 참여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바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www.greenpeace.org/korea

카카오톡

그린피스를 카카오프러스 친구에 추가하시면,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후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프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변화를 만드는 건 사람의 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드는 진정한 힘은 바로 시민들의 행동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합해진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1. 기후 챔피언

2019년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에 하루빨리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멀리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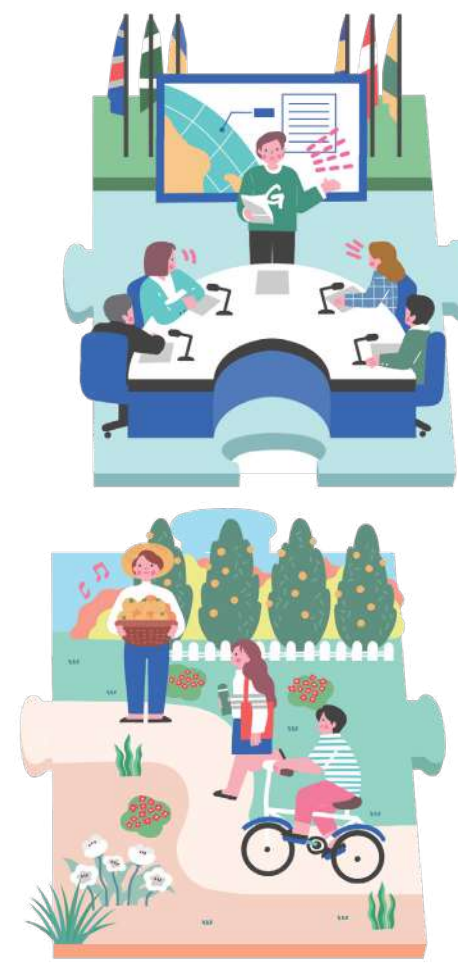
2. 활동가들

평화적 직접행동은 그린피스의 상징적인 활동 방식입니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에 보다 강력한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주에서는 15세 학생이 해양보호를 위해 카누를 타고 나섰고, 부산에서는 100명의 시민이 해양보호구역을 요구했습니다.



3. 정책 고문

그린피스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밝혀, 정부와 기업에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원으로 각종 국제 환경 회의에 참여하고 비즈니스계의 주요 인사들과 정부 관계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과학자들

그린피스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깊이 연구합니다. 외부 여러 전문가와 힘을 합치기도 하고, 시민 과학자들을 모집해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5. 환경파괴와 인권

환경파괴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상기후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난민들, 생존을 위협받는 아마존 원주민들, 착취당하는 원앙아선의 선원들 등 환경파괴로 삶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과 연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6. 최전방의 사람들

그린피스는 세계 곳곳의 대형 산불, 유류과 아시아의 홍수, 아프리카의 메뚜기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구조를 지원하거나 상황을 기록 및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생활 속 실천가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 식습관 지키기 등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 인플루언서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을 볼 땐 비닐봉지를 거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을 실천하고, 환경 문제에 관해 공부해 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토시 페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2019년은 시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해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185개국, 1,0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막아달라는 행진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후행동'의 주체가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꾸준했습니다.

반년 이상 지속된 호주 산불과 녹아내리는 빙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저는 도전하고, 일어서고,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계속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용기를 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에 도전하는 대담함과 끈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노와 강인함. 과학과 분개. 빠른 계획과 긴 반영. 차가운 인내와 무한한 끈기.”

저는 기후 행동에 동참한 사람들과 우리 그린피스 안에서 이런 특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기후 행진, 기후 결석 시위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각 나라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및 인력의 50% 이상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지부의 3개년 전략 계획을 읽고 이사회는 비전과 헌신, 끊임없는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동아시아지부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국제 NGO로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 사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거버넌스 및 재무 관리 표준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가 그리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이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후원자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투지 등 변화의 여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지지는 모든 그린피스 활동의 초석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린피스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이팡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더 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변함없이 회사에 나가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한 가지, 우리 모두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린피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모두 끝난 후에도, 우리 인류는 여전히 더 큰 위기, '기후 비상사태'와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례 없는 전염병 사태를 이겨낸 경험이 지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해양보호 등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최전방의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각종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등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후위기 역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린피스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과 동시에 위기 속에서도 활발히 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구제 금융과 경기 부양책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업계 대신 청정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유익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화석 연료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의 위기에서 탈출해서 바로 또 다른 위기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서울과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무소는 서로의 힘과 노하우가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린피스 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고 힘을 합하며, 환경문제와 맞서기 위해 후원자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서 일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모든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소중히 나누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요!

2019, 시민들이 만든 변화



2019년,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우리 눈앞에 닥친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아마존 산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사무소가 힘을 합쳤고, 각 사무소별로 지역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웃 사무소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은 전 세계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힘을 합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청소년과 학생들의 뒤를 이어 직장인들이, 노인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정부에 기후위기에 지금 당장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과 그린피스가 함께 이루어 낸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합니다.

1. 기후위기 인식 변화 MINDSET CHANGE: CLIMATE CRISIS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선 시민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85개국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달라’며 결성 시위에 나섰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세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의회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2019년 12월까지 26개국 1,246개 지자체가 기후비상사태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153개국 1만 1,000명의 과학자들 역시 기후비상선언을 발표하고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 남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동물들의 멸종이나 보건,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은 우리의 인권과 직결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에 발맞추어, 각국의 정부들 역시 한시 바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5°C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는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600만 명

작년 한 해 동안 기후위기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며 기후파업 행진에 동참한 시민들은 전 세계 600만 명이 넘습니다.

11,100명

전 세계 1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기후비상선언에 서명하고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BREAK FREE FROM COAL

석탄의 시대에 작별을 고하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신규 석유 시추나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한 석탄 발전소 폐쇄, 석탄 산업 투자 중단 요청 등 각국에서 다각도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신규 석탄발전 설비 증가는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에서 석탄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33개 국가 및 27개 지방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발전소가 운전해 들어간 발전소 숫자를 넘어섰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석탄발전소 전력량은 2018년에 비해 16%, 유럽은 24%나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석탄발전소 평균 가동률도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외 석탄 투자 TOP3인 중국과 일본, 한국의 석탄 관련 투자를 막기 위해 세 사무소에서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이 직접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요구해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PPA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51%

작년 한 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7.6%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 년에서 2030 년 사이에 연간 탄소 배출량을 7.6%씩 줄여야 합니다.

21,000명

한국의 해외석탄투자 반대 캠페인에 서명해준 시민들

3.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BIODIVERSITY: OCEAN PROTECTION

바다를 지키는 숫자, 30 x 30

건강한 바다는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이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막아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는 석유 시추와 남획,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3백10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2030년까지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린피스는 2019년 북극에서 출발하여 남극까지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서양 심해의 해저 온천 '잃어버린 도시(the lost city)', 붉은 바다거북의 서식지인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아마존 산호초, 남동 대서양의 해저산 마운트 베마, 남서대서양 등을 방문해 독특한 생태계를 조사하고 파괴 실태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시민들과 지역사회 단체, 시민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2020년 초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인 에퀴노르는 호주 남부의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만의 석유 시추 계획을 포기했으며, 호주 최대 에너지기업 OMV 역시 뉴질랜드 바다에서 진행하려던 석유 탐사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산업적 활동이 금지되는 엄격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보호를 논의하는 각종 회의에 맞춰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3,100,000명

3백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30x30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전체 바다의 30% 이상을 인간의 상업적 활동이 없는, 완전히 지속 가능한 해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60%

전체 바다 중에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는 60%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4. 플라스틱 소비 감소 REDUCED: BREAK FREE FROM PLASTIC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트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대형 마트와 소매점 체인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세인즈버리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을 50% 감소할 것을 약속했으며, 트레이더 조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대폭 축소해 1년에 1백만 파운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파크앤샵에서는 포장하지 않은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친환경 화장실용품 리필 판매대를 마련해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용기에 샴푸와 비누 등을 담아갈 수 있는 '패키지 없는 판매 모델'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인 이동을 규제하는 유엔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선택됐습니다.

서울사무소 역시 시민들이 플라스틱 포장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소개하는 '플라스틱 없을지도'를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직접 제작했으며, 국내 대형마트들의 플라스틱 포장 사용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90%

우리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25,000명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서명해 동참해 주신 시민 수

3,000km²

러시아 정부는 마침내 삼림 보호 정책을 개정하고 공식적으로 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드빈스키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1,000,000명

아마존 산불의 근본 원인인 삼림 파괴를 막아 달라고 보우소나루 정부에 요청하는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 수

5.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SUSTAINABILITY: FOREST PROTECTION

전 세계 시민들, 산불을 막기 위해 나서다

2019년에는 브라질 아마존,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캘리포니아, 콩고 및 그린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초대형 산불들은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현지 주민과 동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르지만, 일부 대형 산불은 삼림 개간을 위한 삼림 파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숲이 가축을 기르고 팜유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베어져 나가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아마존 산불의 원인 중 하나인 육류 생산을 위한 삼림 파괴를 멈추기 위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에 아마존 삼림 벌채와 관련된 육류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브라질 원주민들과 연대해 전 세계 시민들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당장 아마존 파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어지는 산불 소식 사이에서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린피스가 산림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20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온 러시아의 야생 천연림 드빈스키 숲에 드디어 30만 헥타르(3,000km²)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탄생한 것입니다. 천연림은 새롭게 조성된 숲에 비해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주며, 많은 동식물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을 지킵니다.

그린피스는 잘못된 삼림 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벌목 실태를 추적해 무차별적인 삼림파괴를 막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서울 사무소 상세 프로젝트

2019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전기차 확대, 기업전력구매계약 (PPA) 도입, 대형마트 플라스틱 줄이기 등 국내 환경 이슈는 물론 후쿠시마 현장 조사,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필리핀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아마존 산불 등 국경 없는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Seungchan Lee / Greenpeace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한국 석탄 투자

한국은 공적 금융으로 해외 석탄에 투자하는 전 세계 3위 국가로, 지난 10년간 총 9개 국가에 1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중 두 번째로 많은 발전소가 건설된 인도네시아에 집중했습니다. 지역과 주민 피해가 크고 석탄발전소 수주나 건설을 둘러싸고 형성된 관계의 폐해가 더욱 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짜레본 2호기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수상한 재판이 포착됐습니다. 짜레본 2호기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일본의 거대 금융과 함께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발전소입니다. 놀라운 건, 현지 공무원의 뇌물 비리 재판에 현대건설이 거론됐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은 짜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시위를 무마해준다는 조건으로 짜레본의 군수 순자야에게 약 5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부정부패 감시단체 글로벌 워트니스, 인도네시아 지구의 벗 왈히(WALHI)와의 공조를 통해 여러 인도네시아 법정 문건을 단독 입수했고, 국정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을 크게 공론화했습니다.

짜레본 1호기 건설 후 강과 염전의 오염으로 생계를 잃고, 이해관계 충돌로 공동체가 파괴된 고통 속에 수년 간 소송을 이어온 짜레본 주민들의 삶은 한국의 공적금융 투자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주요한 건을 깊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짜레본, 수랄라야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제작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담아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들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낮아 현지에 더 많은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현실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더블 스탠다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외의 끊임없는 비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이 투자를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도 후원자님들의 지원으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위 자료는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과 각종 언론 매체에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이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단체들과 협력해 민간 은행의 탈석탄 투자 선언과 국내 지방 정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조례 지정을 요구해 성과를 얻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탈석탄 금융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적 금융은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금입니다. 우리가 낸 돈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석탄발전으로 훼손하는 셈입니다. 이 위험한 투자를 막기 위해 후원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 David Jaemin Byun / Greenpeace

친환경 전기차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 분야 중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즉 전기차 100%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18년 독일 항공우주연구센터(DLR)와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에 따르면 우리는 2028년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의식에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전환을 돕는 환경기준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자동차 평균 CO2 배출량을 km당 95g으로 제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규제완화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10개 이상 주 정부가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내연기관 퇴출은 답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계를 궁지로 몰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환경 기준을 유예, 저지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동안 올해로 2년 연속 환경부는 또다시 자동차 CO2 배출목표 기준안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 기준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집착하는 산업계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미래차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 중심의 사업 전환을 요구합니다. 제조사들은 탄소 제로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린피스는 100% 전기버스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자제장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정책보고서도 발행했습니다. 또한 2019 서울 모터쇼 행사장과 만남의 광장 대형 광고판에 올라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박람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 더욱 날카롭게 자동차 산업의 그린워싱 실태를 드러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보다 더 다양한 정책 결정자, 전문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소음,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보편화되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때 까지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19년 1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알렸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그린피스의 분석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한국 정부와 부처들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을 끌어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직접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 총 14개 부처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문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정부의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를 전달하



기 위해 그린피스는 여러 차례 국제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개최된 유엔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IMO)에 참석해 오염수 문제의 시급성을 알렸으며, 그린피스와 공조하는 전문가 그룹과 꾸준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린피스 해양과학자 데이비드 산틸로는 지난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해사기구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의 대표단을 만나 양국 8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9년 동안 후쿠시마 현장에서 방사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현장 조사는 후원자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특별일시후원을 통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주요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예년보다 4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며, 후쿠시마 시내와 J 빌리지에서 핫스팟을 발견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와 동행 취재로 일반인 접근 금지 구역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J 빌리지에서 발견한 71 마이크로 시버트(71μSv/h) 등 엄청난 수준의 핫스팟과 재오염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그린피스를 통해 핫스팟 존재를 알게 됐고 이를 제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은 르 몽드,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소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오염 지역으로 주민들의 귀환을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위험과 재오염의 근거들을 알리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그리고 한국의 원전 위험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질 때까지 우리의 캠페인을 멈추선 안 됩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방사능 오염과 원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책임은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싸워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

그린피스는 2015년부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PPA’ 제도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기업PPA 도입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바꾸고, 교통수단은 전기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숲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통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린피스는 서울사무소는 2015년부터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한 걸음씩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요.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가 어려운 국내 제도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그린피스가 주목한 것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입니다. 기업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 계약을 맺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요금제도 등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업PPA’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 설계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서 청개구리의 탈을 쓰고 기업PPA의 도입을 요구하는 배너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 2019년 5월과 6월, 산업부는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기업PPA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PPA’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검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기업PPA 제도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100% 재생에너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 Soojung Do / Greenpeace



해양보호 캠페인

인류를 지켜온 바다,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2018년 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 반도 앞바다에 180만km²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업과 개발에 눈먼 이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극 바다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이 목표는 공식적으로 제안된 해양보호 조치 중 가장 야심 잡니다. 하지만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했을 만큼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20년 3월 열리는 유엔 회의 전까지 각국 정부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의 시작, 그린피스는 장장 1년여의 대장정이 될 ‘북극에서 남극까지(Pole to Pole)’ 실투어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4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을 횡단하며 각종 오염과 자원 개발, 무자비한 어업으로 황폐화하는 바다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알리기 위해 과학자들과 함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과 국가의 리더들에게 해양 생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들만의 안식처, 보호구역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캠페인으로 그린피스는 총 3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을 포함한 20여 개 국가가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션디펜더’라는 시민 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 해수부와 간담회를 열어 시민이 원하는 해양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수십 마리의 얼음 펭귄을 세우고, 지구 온난화로 피해받는 바다 생명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뚝이’라는 펭귄 캐릭터를 통해 EBS 펭수와 함께 남극 보호를 외치고, ‘터틀 저니’라는 초단편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지구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총 70%. 그 중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는 무려 60%나 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공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엔 BBNJ(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 회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회의는 지난 3월 말에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무기한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아직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호구역의 지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후원자님의 더 큰 힘이 합쳐진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세상, 가능합니다

2019년 플라스틱 캠페인팀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6,500t의 폐기물을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재활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플라스틱들이 해외를 떠돌다가 불법 폐기물 수출이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린피스가 충남대 장용철 교수와 연구진들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산된 83억 톤의 플라스틱 중 단 9%만 재활용이 되었을 뿐이며, 60%가 넘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도 사실은 '에너지 회수'라는 명목하에 소각되는것을 포함한 것이라 실제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부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함께, 감축을 위한 목표 및 로드맵 설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달한 평택항에서 배너를 펼치며 환경부를 규탄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또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을 돌며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 소개 하도록 만든 '플라스틱 없을지도', 서울숲에서 진행한 플라스틱 없는 피크닉 등 많은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이 적



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10만 시민들의 서명은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11월 발표된 일회용품 퇴출 로드맵에 그린피스의 요구사항이 모두 실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감축 목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관 부처로서 환경부가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문제는 정부의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작년 환경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가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대형마트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상품 유통과 제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혁신적으로 줄여간다면 생산자도 변화하고 소비자도 플라스틱 없는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2019년 9월부터 환경부와 협업을 맺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한 5대 대형마트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감축 방안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3일 소비자의 날에 맞춰 공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에는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대형마트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가장 먼저 롯데마트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50%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들 역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내일을 위해 움직이는 그 날까지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산불

초대형 산불은 지역사회의 원주민들과 야생동물들의 생존과 기후위기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숲이 파괴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나무가 타면서 발생하는 '블랙 카본'이라는 그늘음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블랙 카본의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북극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블랙 카본이 흰 눈과 얼음을 뒤덮으면 태양 열이 반사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열을 흡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눈과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 카본이 기후위기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아마존의 초대형 산불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화전 개간이 주원인입니다. 문제는 2014년 브라질 정부가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규제가 약화되면서 산림 벌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린피스는 아마존 화재 현장을 기록한 사진과 비디오를 전 세계 뉴스에 퍼뜨려 산불의 정확한 규모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17개국의 브라질 영상관과 대사관 앞에서 아마존 보호를 요구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과 홍콩, 타이베이에서는 아마존 보호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우림을 파괴하는 재료 수입을 중단하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브라질 원주민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 12개국을 방문해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산불은 큰 문제입니다. 2019년 시베리아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1,580만 헥타르의 숲이 소실되었습니다. 화재의 90%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지만 러시아 정부의 느슨한 산림 관리가 더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화재 진압 인력 투입, 관리 구역 재검토 및 범위 확대, 산불 예방 예산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3주 만에 4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 그린피스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개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림 역시 화재로 매년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약 13만 헥타르의 숲이 불탔고, 이는 2018년 대비 88% 증가한 것입니다. 이 화재로 6개 도시가 한때 화재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림 소방대'를 조직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공동체 및 학교에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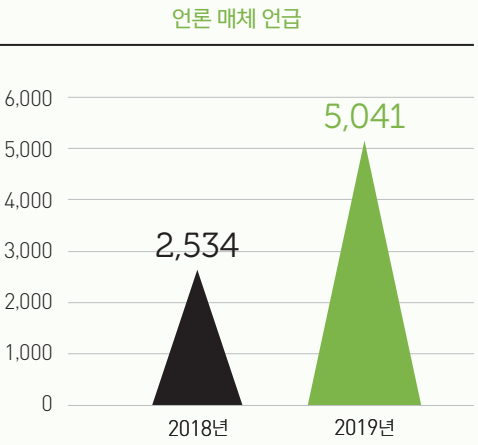
하지만 화재 진압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린피스는 각 정부가 더 이상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숲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입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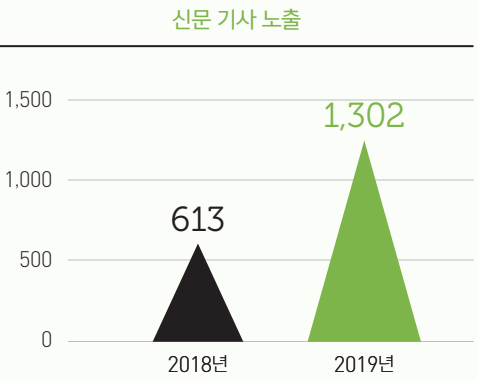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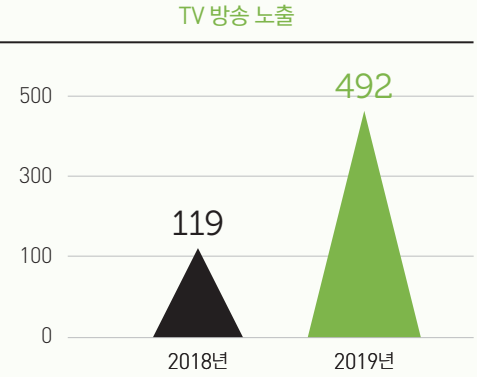
환경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바로 대중 매체입니다. 그린피스는 처음 활동을 시작한 1971년부터 환경파괴의 실태를 언론 매체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서도 TV와 신문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 캠페인과 환경이슈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팀

2019년은 서울사무소의 다양한 캠페인이 더욱 많은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국내외 활동으로 언론에 언급된 수는 2018년 총 2,534건에서 2019년 5,041건으로 약 2배(98%)나 증가했으며, 서울사무소의 보도자료를 통해 캠페인을 소개한 횟수만 2,243건에 달합니다. 특히 환경전문 매체뿐만이 아닌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뉴스 미디어 외에도 시사/교양, 토크쇼, 다큐멘터리, 디지털 뉴스, 아침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플랫폼에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소개되거나 캠페이너가 직접 출연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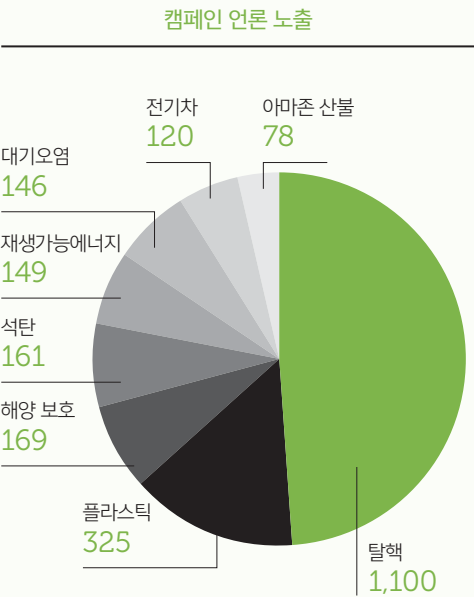
2019년에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특히 TV 프로그램에 많이 소개되었는데, 119건에서 492건으로 전년 대비 314%나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횟수도 613건에서 1,302건으로 1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언론에 소개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캠페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이슈입니다. 이 캠페인은 1,100건으로 가장 많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수년에 걸친 그린피스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피스의 원전 전문가 손버니와 탈핵 캠페이너가 다양한 매체에 등장해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필리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플라스틱 캠페인 역시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환경문제를 현지 사무소와 협력해 발 빠르게 조사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Shaun Burnie / Greenpeace

캠페인을 알기 쉽게 전하고 소통하는 인게이지먼트팀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알리는 것은 물론, 여러 유명인과 전문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팁을 소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폰에서는 보기 불편했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캠페인 진행 상황과 성과를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서명하기, 생활 환경 팁, 캠페인 이벤트, 자원활동가 신청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2016년부터 꾸준히 그린피스를 후원해 온 류준열 후원자님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언론이나 개인 SNS에서 활발히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후원금을 전하며 “주변의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그 과정들이 큰 영향이 되어 우리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배우 이선균 씨는 그린피스 후원 캠페인 영상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내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탓에 바다 동물들이 처한 위기를 특유의 부드럽고 진중한 목소리로 전달해주셨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케이블 TV 광고와 그린피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에는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씨가 아마존 화재 피해 지역 복구와 환경 파괴 현장 조사를 위해 7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최강창민 씨가 직접 디자인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였던 ‘RE:MAX(리:맥스)’ 프로젝트 수익금의 일부로, “다시 지구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기부 프로젝트였던 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제공_허프포스트코리아



그린플러그드 2019 ‘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9’에 참가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야외 공연 페스티벌을 위해 ‘바이 플라스틱(Bye Plastic)’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YB, 하현우, 딕펄스 등 12팀이 OX퀴즈 이벤트,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물품 알리기, 페스티벌 현장 그린피스 라이브방송 등에 참여하여 많은 음악 팬들에게 플라스틱 소비 문제와 생활 속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 ‘지구를 위한 #그린다짐2020’

2019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2020년 새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린다짐2020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환경 보호 실천 다짐을 SNS에 올리고 다짐을 이어갈 친구를 지목하는 SNS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약 1달간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겠습니다’, ‘1주일에 1번 채식을 할게요’, ‘팜유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다짐을 SNS에 올려 주셨습니다.

그린피스 사람들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후원자님의 힘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시민의 힘’은 그린피스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토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후원자님들이 후원은 물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캠페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환경을 위해 힘을 실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으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디지털 모금팀, 이광표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새로운 후원자님들을 찾는 디지털 모금팀 이광표입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환경보호 활동을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도움 없이 오직 개인의 후원으로만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셔서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김민주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김민주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등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린피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문제와 한국전력의 석탄발전 투자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 결과는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 활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어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께 그린피스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린피스 팻캐스터, 차윤탁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팻캐스터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진행하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린피스와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린뉴딜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그린피스 인턴, 팽권 똑이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인턴 팽권 똑이다 똑! 유튜브 똑이TV 구독 잘하고 있똥? 저는 친구들과 남극을 지키고 싶어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왔어요! 그린피스의 활동과 환경 보호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똑이TV를 시작했구요! 앞으로도 그린피스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 똑이도 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바다 사랑 똑이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잊지 않으셨죠?! 사랑해요!!!

남극을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온 그린피스 인턴 팽권 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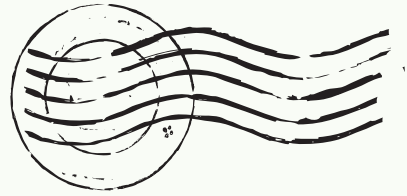
후원자관리팀, 이수지

후원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팀! 안녕하세요, 후원자관리팀의 이수지입니다. 어떤 말로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난 그린피스의 후원자야!”라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후원자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후원자님♥



똑똑, 그린피스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사무실에는 종종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반가운 손편지와 정성스러운 그림이 깜짝 선물처럼 도착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이 적혀있지만, 그 속에 담긴 환경을 생각하는 후원자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사람들에게 언제나 보람과 감사함을 전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자님들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북극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그린피스 사무실 앞으로 도착한 상자 하나! 어린이들의 진심이 듬뿍 담긴 북극곰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용인 두창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북극곰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메시지와 그린피스에 북극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환경을 파괴해서 북극곰에게 미안하다는 착한 마음씨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든든한 다짐도 적혀있었죠.

두창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은 작년 3월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동영상 보고, 북극곰이 처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1년간 북극곰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인 ‘북극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김은영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인간의 잘못으로 북극곰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4월 초 다 녹지 않은 땅을 갈아 감자를 심었고, 여름 동안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담아 감자를 키워 판매했습니다. 무 피클을 만들기도 하고, 벼룩시장에서 아끼는 물건을 팔거나 직접 그린 북극곰 그림으로 만든 에코백을 파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수익금을 모아 그린피스에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계절 동안 아이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후원금과 편지에 사무실 사람들 모두 깊은 감동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두창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 한 장에 담긴 오랜 인연, 김갑돌 후원자님

서울사무소의 재무팀 최다혜 씨는 입사 초기부터 기억에 남는, 너무나도 궁금한 후원자님이 한 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매달 빠짐없이 사무실로 후원금을 담은 편지 봉투를 보내주시는 김갑돌 후원자님입니다. 다혜 씨가 그린피스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주셨지만 정확한 연락처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아 김갑돌 후원자님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알쏭달쏭 궁금한 후원자님으로 유명한데요,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만큼 성함과 간략한 주소만 적힌 봉투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감사 편지라도 드리고 싶어 봉투에 적힌 주소를 추적해 보려고 했지만, 그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차보고서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김갑돌 후원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환경 선생님, 청유보 후원자님

유치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어 그린피스와 인연을 맺게 되신 대만의 청유보 후원자님이 보내 주신 편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아이들에게 환경문제를 가르치려면 저부터 더 잘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린피스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자주 접하고 환경을 돌보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라고 있어 해변 청소나 등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는 개념을 심는 것은 언어 능력이나 교우 관계를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환경보호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전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 교육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중들이 환경 보호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린피스에서도 더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 Youkyoung Hyun / Greenpeace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고 결과를 만드는 기쁨, 함께 누려요!

그린피스의 천개의 얼굴이자 화룡점정은 바로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입니다! 캠페인 준비에서부터 이벤트 현장 진행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멋진 액션의 주인공으로 사진과 영상을 빛내주시는 자원활동가님들이 직접 들려주는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신애 자원활동가
여행지 현지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교감하는 ‘책임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자타공인 첫 자원활동가!



권소영 자원활동가
오션디펜더로 처음 그린피스 자원활동가에 도전했어요. 전공은 도시공학과이지만 지금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준비 중입니다!

Q 그린피스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애 정확히 언제 알았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느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린피스의 활동을 매스컴을 통해 보며 자랐고, 환경문제에 관심도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2011년에 레인보우 워리어 호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활동가로 지원했어요. 그때 다른 자원활동가나 선원들을 만나면서 그린피스 활동에 더 큰 관심이 생겼죠.

소영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경 관련 이슈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항상 그린피스가 뜨더라고요. 작년에 ‘나도 환경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찾아보니 오션디펜더를 모집하고 있길래 ‘이거다!’하고 바로 신청했죠.

Q 자원활동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기존에도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신애 아무래도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았어요. 돈 벌려고 하던 걸 자원 활동으로 하니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직접 몸으로 참여하는 게 저랑 코드도 맞고요. 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에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라는 명칭을 주면서 더 제가 하는 활동에 의미 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소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나 고민하다 일회용품 안 쓰기, 텀블러 갖고 다니기 같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한다고 되겠니?’ 하던 사람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주변 10명만 참해도, 또 그 친구들 주변의 10명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많은 활동을 해 보고 싶었어요.

Q 그린피스 캠페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애 미세플라스틱! 성공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역시 레인보우 워리어 호를 탔을 때예요. 설거지도 돕고, 주방장 보조도 했었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배를 타고 우리 땅의, 육지의 불빛을 바라보는 경험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소영 저는 바다 보호와 플라스틱 캠페인이 좋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 잘 모를 때, 이 두 가지가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오션디펜더로 활동했는데 역시 해운대 포토 퍼포먼스 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제 옆에 서울에서 오신 부부가 앉으셨었는데, 액션도 참여하고 여행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 Youkyoung Hyun / Greenpeace

Q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신 적은 아직 없는데, 서로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소영 신애쌤의 직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혹시 여행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신애 아무래도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별로 안 쓰다 보니 여행 가서도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준비성’이 있어야 해요. 필요한 걸 미리 챙겨서 준비해 가면 일회용품을 살 일이 잘 없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트럭 여행처럼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물통을 써야 할 땐, 최대한 큰 통을 사서 나눠 마시려고 노력해요.

Q 그린피스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신애 제가 하고 싶은 활동보다, 그린피스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캠페인을 말할게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 국경 없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거든요. 우리가 자주 바꾸는 핸드폰 속 콜탄 때문에 아프리카의 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는 것처럼요.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소영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배너를 펼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클라이밍이에요. ‘아, 저만큼 급하구나, 큰 일이구나’를 강력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션디펜더 활동은 자원활동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만 더 보람 있어요!

Q 자원활동가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신애 그린피스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 활동에 관심이 많고 지원도 많아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클릭만 하시면 뱅뱅한 스태프들의 지원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영 일단 도전하세요! 혼자 실천하는 것도 대단하고 멋지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서 오는 에너지와 즐거움이 확실히 커요. 또, 활동의 결과물만 보는 것보다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참여하는 게 전혀 달라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활동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려요!

후원자님의 믿음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그린피스는 기후비상사태를 비롯한 최우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긴급하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항상 곁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지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순위 캠페인은 기후위기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
해 이야기했지만, 2019년에는 심각성을 반영하여 ‘기후비상사태’ ‘기후 위
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아마존과 호주를 수 개월간 불태우고 사람들과 동물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산불 외에도 가뭄, 홍수 및 폭풍과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후난민을 만들어내고 빈곤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꾼 것만이 아닙니다. 긴급한 기후
위기 사태에 맞서기 위해, 우리 기후에너지 캠페인 팀은 더 많은 인력과 자원
을 모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후원자님들의 도
움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양 보호나 산림 보호 캠페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과 바다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온난
화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
라스틱의 원재료가 바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
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캠페인들이 힘을 합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처럼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긴급하게 진행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 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등 4개 사무소에서 환
경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소
개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후원금 사용과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는 우리
의 목표이자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그린피스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 Christian Aslund/Greenpeace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28.4%(8,523원)

글로벌 캠페인 지원
21.0%(6,312원)

독성물질 제거
11.2%(3,346원)

해양 보호
7.2%(2,151원)

산림 보호
4.6%(1,390원)

건강한 먹거리
2.3%(69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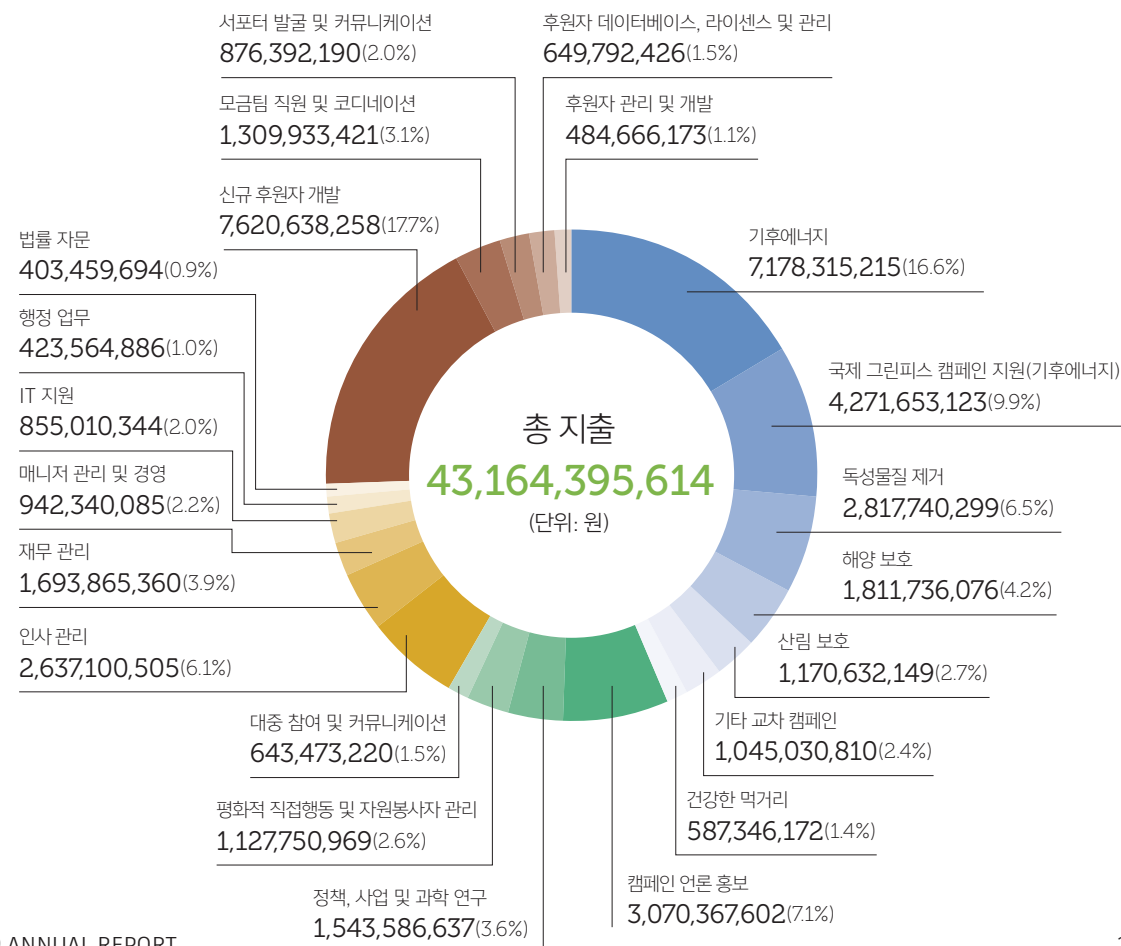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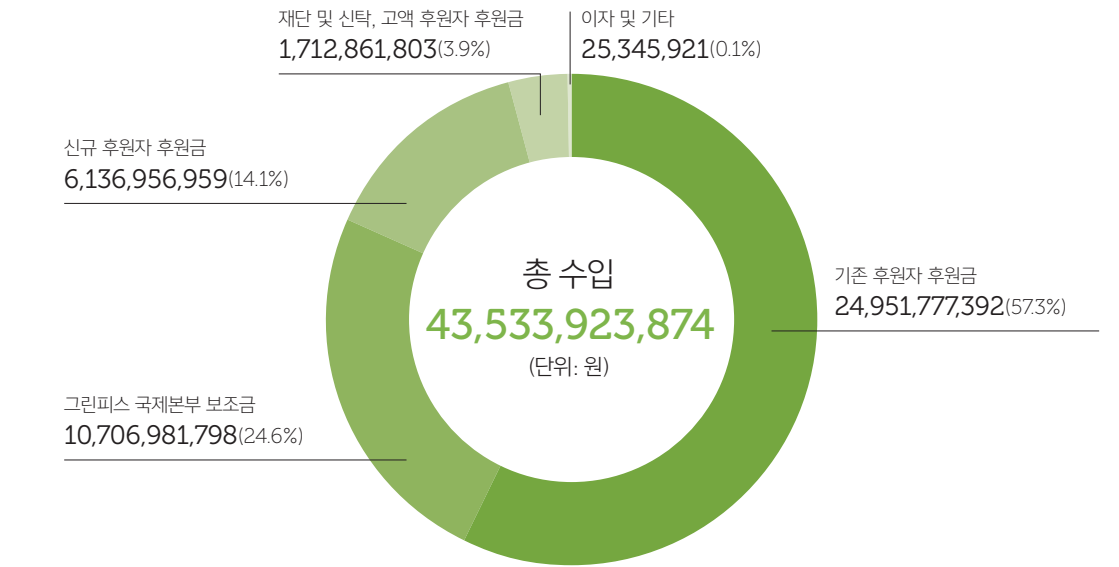
캠페인 미디어 노출
14.7%(4,409원)

평화적직접행동 및 자원활동가 관리
4.5%(1,33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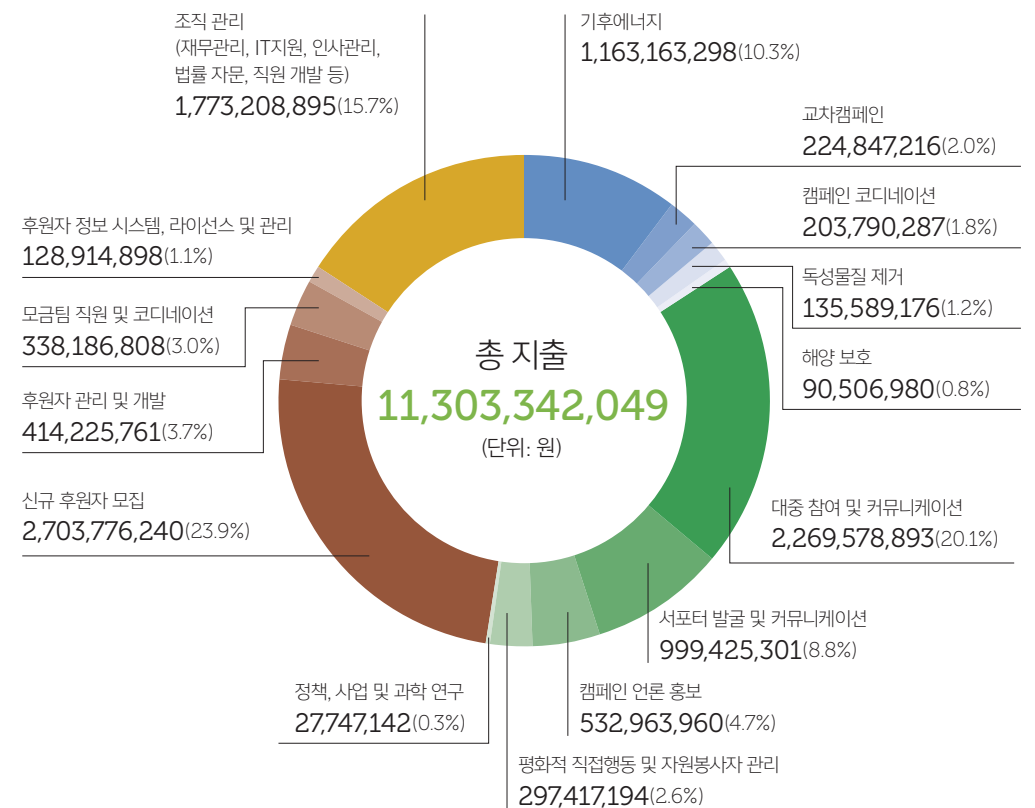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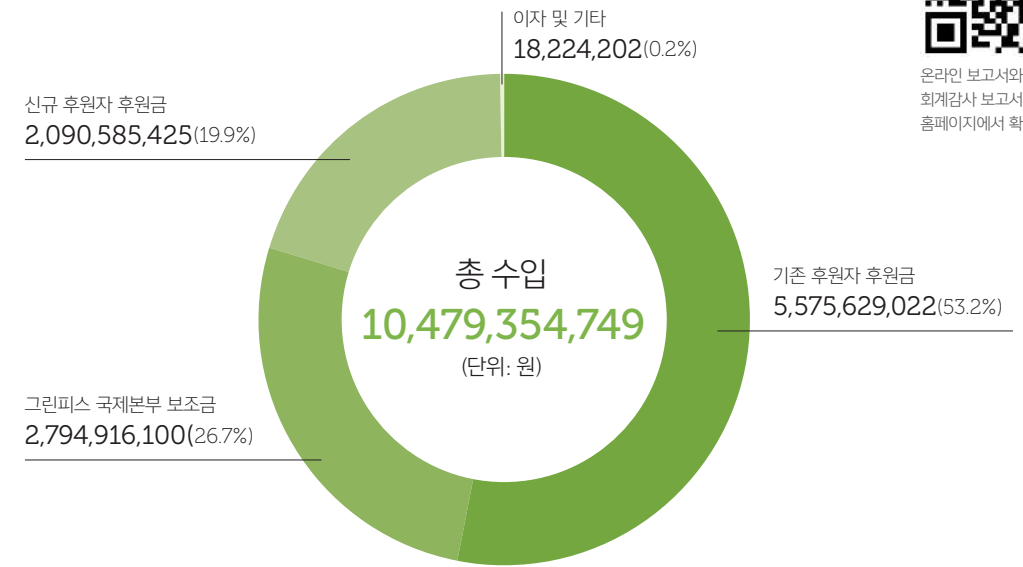
과학 조사 및 연구
4.3%(1,285원)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1.8%(548원)

1 2019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2 2019 서울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온라인 보고서와 자세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기후에너지

총액 7,178,315,215원

에너지 솔루션_서울사무소

2,587,321,686원

- 서울사무소는 한국이 화석연료를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팀을 신설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상 이변을 통해 설명하는 스토리 텔링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기후위기가 한국의 대기오염에도 기여한다는 과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18년까지 자동차 업계가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운송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 자동차 본사에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후쿠시마 현지 방사성 오염 조사를 진행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 회담을 앞두고 21,000명 이상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한국 정부에 해외 석탄 투자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업이 직접 재생가능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전력구매계약서(PPA) 제도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산업통상자원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기업PPA 도입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814,476,703원

- 그린피스의 비영리 에너지 솔루션 육성 프로젝트 파워랩은 중국의 1차 에너지 회사 3 곳이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과 4건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 혁신에 대한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가했습니다.
-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강력히 알리고 대중들이 정보를 얻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국의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여 중국의 철강 도시인 허베이에서 지속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기존 “해외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중국의 해외 석탄 투자 전문가로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팀은 미디어 브리핑을 3차례 진행하고 1개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의 해외 에너지 투자 동향을 보여주고 이로 인한 환경 및 투자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 국유 기업, 상업 은행 및 보험사 등 주요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사선 오염 조사

49,383,090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재해 주변 지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핫스팟을 발견해 일본 정부에 알렸으며, 후쿠시마의 2차 오염 및 날씨 관련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석탄, 수자원 및 대기오염

1,097,548,702원

- 10개 이상의 그린피스 사무소가 협력해 만든 글로벌 대기오염 유닛이 2018 세계 대기 질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3천 곳 이상의 도시를 조사한 결과 64%가 세계보건기구 WHO 연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 세계 환경에 날을 맞아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한국과 인도의 지방 당국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중국의 두 번째 주요 오염물질인 오존 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비디오, 대기 질 온라인 예측 사이트 등을 활용해 PM2.5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렸으며 15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 석탄 산업이 왜 물 부족을 야기하고 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럽, 인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진행한 글로벌 물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63,467,355원

- 기후 팀은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화석 연료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례 회의에 초대받아 세 번째 패널로 연설했으며, 은행 금융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 다렌 기술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녹색 금융 개혁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중국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및 자금 조달 워크숍을 통해 녹색 금융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연구 기관들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관련 부서 및 산업 협회 관계자들과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녹색 금융 사업 프로젝트는 로이터, SCMP 및 블룸버그와 같은 다양한 국제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중국의 새 녹색채권(그린본드)에서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투자

320,970,157원

- Chindata라는 중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 회사와 직접 소통을 통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약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GDS 등 중국의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위한 아웃라인을 만들도록 각종 연설과 공개 요구, 회의, 협상 등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 보고서 발표 및 지역 언론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조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알렸습니다.
-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를 압박하고 설득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지침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121,382,825원

중국 빙하권의 융빙과 이로 인한 영향을 담은 보고서 <녹아내리는 지구> 발표 후, 각종 언론 및 전문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빙하가 처한 위기와 생태계 및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2018년 시민 사회 시상식에서 ‘뛰어난 기후 커뮤니케이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가 빙하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1,598,586,093원

- 타이베이 사무소는 기후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고 선거 후보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순위를 매겨 선거 전에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요 신문의 첫 페이지에 보도되는 등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3,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기후 결석 시위에 동참하고 지원했습니다.
- 6개 대도시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러 도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자 제품 제도 회사들의 대규모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친환경 에너지 조달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솔루션

322,735,093원

홍콩 사무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 과학 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명의 서포터들이 대기 오염 샘플 수집에 참여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산화질소(NO2) 오염 핫스팟을 알리고 이산화질소가 주로 도시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UN 기후회담

202,443,512원

그린피스의 글로벌 대표단이 NGO 관찰자로 UN 기후협약 회의에 참석했으며, 동아시아지부 역시 2019년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25회 유엔기후협약(COP25)에 참가해 전 세계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해양 보호

총액 1,811,736,076원

남극보호

1,014,561,860원

- 남극에 지구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인물루언서, 의사 결정자, 과학자 및 NGO들과 협업해 남극의 아름다움과 남극이 처한 위험을 알렸으며, 전 세계 3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항해하는 선박 탐사(십투어)를 진행하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와 파괴 및 오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항해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전체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해양 조약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서울사무소에서는 부산 해운대 바다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오션 디펜더’를 구성해 외교부, 해수부와 의 만남을 갖고 시민들이 원하는 해양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불법 어업 및 남획

338,680,924원

- 타이베이 사무소는 지방 정부가 불법, 미보고 및 규제되지 않은 어업(IUU)을 저지하고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만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경고 후, 우리는 더욱 엄격한 행정 조치와 정책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원양어선의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각국 정부에 선원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해양 보호

458,493,291.96원

- 만바다에서 벌어지는 원양어선들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기 위해 어업법과 원양어업 규정 및 원양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권장 사항을 중국 정부에 제안해 일부 내용이 중국 원양어업 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동대서양과 남서대서양 연안에서 조사를 실시해 대규모 어업, 파괴적인 어업 및 중국 선박의 불법 어업 활동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위해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 정보를 신고했습니다.
- 상어로 만든 제품(고기, 지느러미, 기름)의 세계 시장 규모와, 상업적인 대규모 어업이 상어에 끼치는 위험에 대해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명 인물루언서와 협업해 해양보호 캠페인을 알리는 사진 및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산림 보호

총액 1,170,632,149원

국립공원 보호

343,198,969원

베이징에서 자연보호구역과 국립 공원에 관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술 전문가 및 주 산림 관리 공무원들을 초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위해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 공원 현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다큐멘터리

273,343,470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원난성의 달리에 있는 1,100년 된 거대 나무의 초고화질 사진을 최초로 공개하고 관련 비디오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주요 언론사는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글로벌 산림 보호

92,330,707원

- 브라질 아마존 산불,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 및 호주 대규모 산불 등 글로벌 산림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지지자들을 모아 정부와 기업들에게 산림 파괴를 멈출 것을 요구했으며, 산불과 기후위기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고 대중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 중국 원난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 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전 세계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국이 유엔 환경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린피스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후협상에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비정부기구로 참석하여 주요 정당,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국, 각종 비정부기구 및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상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시아 코끼리 보호

461,759,003원

인간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장되면서 야생 코끼리의 서식지 및 활동 영역이 인간들과 겹쳐 접촉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말부터 원난성의 반나 국립 자연 보호구역과 협력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아시아 코끼리의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시스템을 구축해 코끼리 개체 수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총액 587,346,172원

지속가능한 농업

587,346,172원

베이징 사무소는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 과학원의 과학자들과 농업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여러 라이프스타일 인물루언서들과 협업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소개했으며, 20만 건이 넘는 조회 수와 수천 건의 소셜 미디어 채널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지역의 NGO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총액 2,817,740,299원

과잉소비

45,775,869원

베이징 사무소는 배우, 패션 디자이너, 친환경 레스토랑, 환경보호 활동가 등 다양한 직업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협업해 “아무것도 안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인기 잡지에서 특집 기사로 발행되었으며, 비디오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소개되어 12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수질오염

60,746,892원

- 베이징 사무소는 중국 도시들의 오염된 토지 재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정부 부서와 언론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오염된 토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산업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전문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기업가, 미디어가 함께 잠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오프라인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플라스틱 프리_서울 사무소 324,588,939원

플라스틱 프리_베이징 사무소 608,011,841원

플라스틱 프리_홍콩 사무소 714,534,981원

플라스틱 프리_타이베이 사무소 1,064,081,778원

글로벌 환경 영향 307,236,647원

- 서울 사무소는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정부에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긴급대응 캠페인은 대중과 주요 미디어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충남 대학교와 함께 우수 플라스틱 관리 관행과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해결책이 많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 슈퍼마켓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마켓을 조사하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프리 슈퍼마켓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홍콩 사무소는 홍콩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유럽의 슈퍼마켓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전문가들을 초대해 플라스틱 없는 마켓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 어려움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홍콩 최초로 플라스틱 프리 플래그십 슈퍼마켓을 오픈했습니다.
- 100명 이상의 시민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 제품들이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포장되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한 유명인, 연예인들과 협업해 슈퍼마켓과 플라스틱 오염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리얼리티 쇼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6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 홍콩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지난 3년간 11배나 증가했음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타이베이 사무소는 대만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남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시민과학 조사를 진행했으며, 플라스틱 포장 사용 감소를 요구하는 14만 명의 청원을 슈퍼마켓에 전달했습니다.
- 대만 최초로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사용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글로벌 슈퍼마켓과 비교해 플라스틱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알렸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 대만의 3개 주요 도시에 “플라스틱 프리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방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2주 동안 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ReThink IT 130,913,351원

도시개발 319,506,735원

야생동물 보호 287,374,077원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4,271,653,123원

- 베이징 사무소는 2030년까지 중국의 전자 폐기물 양과 재정적 가치를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해 700건 이상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또한 관련 보고서는 43만 건, 비디오는 8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 베이징에서 가장 큰 쇼핑물 중 하나에 652개의 중고 전화로 만든 탑 조형물을 1주일간 전시하고 중국의 전자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총액 4,271,653,123원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지원해 2019년 기후 프로젝트 3건, 산림 프로젝트 2건, 플라스틱 프로젝트 2건,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 건강한 먹거리 프로젝트 2건, 해양 보호 및 긴급 대응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탈석탄 캠페인

- 석탄 부문의 정치적 부패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업계와 당국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석탄 산업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3천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총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8월부터 석탄 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한 대기 오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특별 행정 구역에 석탄 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대기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석연료 그만 캠페인

- 2020년 2월까지 7개의 병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가능에너지로 병원의 수많은 생명 유지 시스템의 전력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실용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민간 태양광 병원의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로, 병원은 매년 1천 8백만 바트(약 7억)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태국 에너지 규제위원회(ERC)에 일반 시민들이 옥상 태양광 패널과 같은 소규모 발전 장비를 설치하고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소중한 후원금이 어떤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는지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기존에 '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 으로 표시되었던 항목을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각 프로젝트 별 지출에 반영했습니다.

기후정의 캠페인

- 그린피스는 필리핀 태풍 피해자들과 연대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 왔으며,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최초로 기후정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4년간의 조사와 현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9년 12월 쉐, 엑손모바일, 세브런, BP, 렘슬, 사슬 및 토탈을 포함한 47개의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 우림 보호 캠페인

- 팜유 생산을 위한 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세계 최대 생활용품 브랜드 및 팜유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삼림 벌채 중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팜유 거래 기업인 월마 인터내셔널은 모든 공급 업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1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6,385,178,428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3,713,840,822원

캠페인 미디어 홍보, 브랜드 구축 및 대중 인식 조사

1,894,478,995원

동아시아 지부 캠페인 프로젝트를 28명의 스태프가 진행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캠페인을 알려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해 캠페인 메시지와 정보를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인터뷰 진행, 국내외 미디어 출연 및 보도자료 전달 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모든 환경 보호 프로젝트와 그린피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직의 이미지 및 가치와 일치하도록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활동 및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키워드, 기사 및 환경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분석,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활용 혁신 및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 및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경향을 분석해 그린피스의 활동과 캠페인 메시지, 핵심 가치를 전하는 비디오, 브로슈어, 책자 등을 제작합니다. 학교, 대학교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홍보합니다.

환경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810,961,581원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뉴스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다루는 환경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멀티미디어

364,927,026원

환경파괴 현장을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일러스트,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643,473,220원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행하며, 후원자 및 서포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 뉴스와 캠페인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각종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2. 평화적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총액 1,127,750,969원

지역 평화적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346,919,581원

캠페인을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NVDA) 전반, 트레이닝 관리, 지역의 활동가 및 시민들의 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닝 및 장비

320,163,184원

캠페인을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합니다.

창고

460,668,205원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대여비, 관리, 보수)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1,543,586,637원

지역 조사 및 연구

337,337,974원

지부 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리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긴급 환경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연구 역량 개발

272,862,697원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고급 인지과학 적용

472,158,596원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 시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급 인지과학(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을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 전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사무소에서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2019년에는 총 5명의 전문가가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를 위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및 외부 업무

345,678,093원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115,549,277원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환경을 위한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개 비즈니스 포럼 등 투자 및 금융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